

[5] WISE InfoNet, 日 IP전화, 유선전화 착신 통화 개시...독립 위한 '첫 걸음', 2003. 10. 23.

[6] 情報通信綜合研究所, 注目すべきKDDIの二つの新サービス, 2003. 11.

---

## 디지털 정보격차의 재정의와 주요국 현황

---

미래한국연구실 연구원 유지연  
(T. 570-4238, jyy@kisdi.re.kr)

### 1. 개 요

지난 10월 말, 미국의 반도체 생산업체인 AMD사 산하 GCAB(Global Consumer Advisory Board)에서는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를 다룬 연구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10년간에 걸쳐 주요 8개국<sup>1)</sup>의 정보기술 활용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격차를 비교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사회에 있어서도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정보격차 분석을 위한 변수와 객관적인 현황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AMD보고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므로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 2. 주요내용

#### 가. 디지털 정보격차 분석 변수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구자들 간에 동의된 바는 없지만, 정보격차의 존재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AMD 보고서에서는 디지털정보격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크게 접근과 이용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접근과 이용은 기술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로 분류하였다.

그 첫 번째가 인프라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적인 접근이다. 기본적으로 정보기술로의 접속기회 여부에 의해 디지털 정보격차의 유무가 가려진다. 이제까지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나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두 번째는 정보기술을

---

1) 주요 8개국은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중국, 멕시코이다. AMD보고서에서 이들 8개국을 채택한 이유는 2002년도 세계 인터넷 인구의 68%가 이들 8개국으로 구성되며, 또한 인터넷 접속과 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패턴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을 습득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보기술로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이며 문화적인 사회적 여건이다. 나이와 성, 수입, 언어, 지리적 위치 등과 인터넷 이용을 도모하는 콘텐츠와 유용성 등이 이에 속한다. 네 번째는 정보기술의 활용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상호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가능성이다. 정보를 생성하고 유통하며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정보격차는 단일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변수들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이다.

<표 1> 디지털 정보격차 분석을 위한 변수

접근(Access)	이용(Use)
<b>기술적인 접근(Technical Access)</b> - ICT 인프라(ICT Infrastructure)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대역폭(Hardware, software, bandwidth)	<b>기술적인 리터러시(Technological Literacy)</b> - 기술적인 활용 능력(Technological skills) - 사회활동으로의 활용 능력(social and cognitive skills)
<b>사회적인 접근(Social Access)</b> - 접근가능성(예, 수입 등)(Affordability) - 자각(Awareness) - 언어(Language) - 내용/유용성(Content/Usability) - 지리적 위치(Location)	<b>사회적인 이용(Social Use)</b> - 정보욕구(Information seeking) - 자원 운용(Resource mobilization) - 사회적 활동(Social movements) - 시민연대(Civic engagement) - 사회적 수용(Social inclusion)

나. 보고서 결론

우선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 중 불과 10%에 해당하는 인구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사용인구 중 90% 가량은 선진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된 결론은 전반적 측면에서의 정보격차가 연구대상 8개국에서 모두 좁혀지고 있는 반면, 특정 부문에서의 정보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8개국의 디지털 정보격차 경향을 비교분석이 가능한 사회경제적 지위, 성, 나이, 그리고 도시-지방<sup>2)</sup>에 따른 인터넷 접근 비율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수입과 학력의 사회경제적 지위, 성, 나이, 그리고 도시-지방은 수치화가 가능하므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나, 기술적인 리터러시, 사회적 이용 등은 비교가 어렵다.

〈표 2〉 8개국의 디지털 정보격차 경향

국가	사회경제적 지위	성	나이	도시-지방
미국	↓	↓	↓	↓
영국	↑	↓	↓	↓
독일	↑	↑	↓	↓
일본	↓	↓ (모바일인터넷의 경우는 여성이 높음)	➡	↓
한국	↑	➡	↑	↓
중국	↓	↓	↓	↓
이탈리아	?	↑	?	↓
멕시코	?	?	? (대학생 이용이 높음)	↓

※ ↑: 디지털 정보격차 증가, ↓: 디지털 정보격차 감소, ➡: 디지털정보격차 여전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남성과 여성에 따른 '성 격차(gender divide)'가 존재하며 한국은 연령에 대한 디지털 정보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독일, 이탈리아, 한국,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여성이 인터넷 사용 면에서 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에서는 소년과 소녀 간의 인터넷 사용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미국은 정보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는 다른 선진국에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은 모바일 웹서비스에서 앞서 있으며, 한국은 broadband 접속에서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살펴보면, 인터넷사용자(7세 이상으로 한 달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가 2002년 7월 현재 2,600만에 달하고 broadband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입자수가 870만(2002년 현재)으로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나타났다. 한국의 인터넷 접속 통계를 분석한 결과로 우선 사회경제적 지위는 월소득 250만원 이상인 경우 인터넷 접속률이 70%인 반면, 월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 37%에 불과하였으며, 대졸학력 이상인 자와 고졸학력자의 인터넷 접속률 격차는 1999년 28%포인트였으나 2001년에 40%포인트로 증가하였다. 또한 인터넷에 접속하는 여성의 수가 급속히 늘고 있음에도 2002년 현재 남녀간 정보화 차이는 12~14%포인트로 전에 비해 크게 좁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의 연령별 인터넷 접속률 격차는 연구대상국이었던 8개국 가운데 가장 현저하게 나타났다. 7~19세 연령대 사용자와 50세 이상 사용

자 그룹간의 접속률은 1999년 40%포인트였으나 이후 2000년에 70%포인트, 2001년에 84%포인트로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지역별 인터넷 사용확산은 지역에 따라 불균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서울이 도시와 지방을 불문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벽지를 포함한 전국에 브로드밴드를 확산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통해 그 격차는 차츰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시사점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디지털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기술적인 요인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숨겨져 있다. 즉, 사회적 원인이 존재한다. 이에 디지털 정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공급을 늘리고 인터넷 접속을 장려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AMD 보고서에서 가장 강조한 바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인터넷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은 2001년에 수립된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으로 그 기본틀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계획 수립 당시인 2000년 말을 기준으로 1,904만명(이용율 44.7%)이던 인터넷 이용자가 2003년 6월 현재는 2,861만명(이용율 64.1%)으로 약 1,000만명이 증가하였으며, 인터넷으로의 접속을 중시하던 ‘인터넷 제1세대’를 지나 일상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인터넷 활용이 중요해지는 ‘인터넷 제2세대’가 도래하고 있다. 정보격차 해소 정책도 단순히 정보의 접근, 즉 인프라의 확충과 컴퓨터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보급에만 머무르지 말고 인터넷의 이용증대로, 그리고 다시 정보활용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기존의 정보격차는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를 의미<sup>3)</sup>하였다. 그러나 이제 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정보격차’에 대한 정의의 재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접근과 정보이용, 그리고 정보활용의 현황 분석과 각 단계에 따른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정보접근 격차해소는 경제적·지역적·신체적 여건 및 제반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opportunity)의 불균등 해소이며, 정보이용 격차해소는 정보통신기기의 이용방법, 수요자를 고려한 정보의 제공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ability)의 차이 해소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활용 격차해소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생산성과 효율

3)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법률 제 06795호] 제2조 정의

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1] Barry Wellman & Caroline Haythornthwaite(eds), 『The Internet in Everyday Life』, Oxford: Blackwell Publishers, 2002
- [2] Wenhong Chen and Barry Wellman, “*Charting and Bridging Digital Divides: Comparing Socio-economic, Gender, Life Stage, and Rural-Urban Internet Access and Use in Eight Countries*”, AMD Global Consumer Advisory Board, October 27, 2003.
- [3] The Inquirer, ‘AMD survey says US Internet lagging behind other countries’, 2003. 10. 29
- [4] 황주성 외, 사이버문화 및 사이버공동체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2-25, 2002